전주시민축구단, 우아지역아동센터에 유니폼 전달

전주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이하 전주)이 지역아동센터에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27일 전주에 따르면 이날 우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국가대표팀 레플리카(유니폼)와 전주시민축구단 사인공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양영철 감독을 비롯해 강동화 도의원과 노선덕 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대표팀 레플리카(유니폼) 후원은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엔젤저지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전주는 우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매주 1회 축구교실을 운영키로 했다.

강동화 도의원은 "우아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무료 축구교실을 열어줘 아이들에게 큰 선물인 것 같다"면서"전주시민축구단은 전주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선덕 센터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줘 고맙다"면서"아이들에 무료 축구교실까지 열어줘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영철 감독은 "전주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우아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매주 1회 만나면서 축구를 통해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10월 2일 오후 2시 진부면민체육공원에서 평창유나이티드와 '2022 K4리그 31라운드' 원정 경기를 갖는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전민기씨,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서 동상

무주군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이 '제39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최대의 기능 장애인 축제인 '제39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지난 20~2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올해 무주군에서는 적상면에 거주하는 전민기 씨(23)가 '한지공예' 부분에 출전해 영예의 3등(동상)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씨는 "참가에 의미를 두고 이번 기능경기대회 참여했다"라며 "입상 생각도 안했는데 뜻밖에 좋은 성적을 거둬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해부터 한지공예 수업을 진행했으며, 전 씨의 경우 한지를 활용한 생활소품 등에 관심을 갖고 수업에 임했다는 후문이다. 4일간 진행된 올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 400명이 참가했다. 전국적으로 금메달 39명, 은메달 38명, 동메달 36명 등 총 1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종합복지관, 장애인가족어울림한마당 마련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홍교)은 27일 햇살 좋은 가을 날 장애인·비장애인·아동이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식개선 포토존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었으며 장애인식개선부스 zone, 장애인 스포츠 체험 zone, 먹거리&부대시설 zone, 마술&버블쇼 공연 등을 통해 장애인, 장애인 가족, 아동, 비장애인 300명이 모두 함께 웃고 즐기는 신명나는 하루가 되었다.

이홍교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장애인가족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역할과 권리를 누릴 수 있음을 알리고 모두 함께 화합하고 소통을 통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자."고 하였다. 특히, 행사에는 지역사회 단체와 동아리에서 재능기부와 나눔활동을 해주었다. 바늘여행, 빵수니빵바람났네, 무주군가족센터, 주식회사 아이엠무주, 아트컴퍼니, 오늘네일, 달콤베이크숍이 함께 해주셔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이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공노조연맹 노사한마음대회 성료

8개 시군 공무원 600여명 참가, 노사화합의 장 열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지석, 이하 전북연맹)이 주관하고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창훈, 이하 익공노)과 익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회 전북연맹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가 27일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익산시립풍물단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연 제1부 기념식행사는 한창훈 익공노 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최지석 전북연맹 위원장의 대회사, 정헌율 익산시장의 환영사 및 축사에 이어 노동조합기 입장 및 노사화합의 메시지 선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제2부 한마음경기와 제3부 화합한마당을 통해 각종 비상근무와 현안업무 등으로 지친 공무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창훈 익공노 위원장은 "우리 공무원들은 평소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헌신봉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한마음 대회를 통해 노사가 더 단결하고 하나로 뭉쳐 보다 안정적인 공직생활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한마음으로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전북연맹 공무원 노사한마음대회는 2020년 익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로 3년만에 익산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남로타리클럽, 장학금 1200만원 전달

전주남로타리클럽(회장 김형권)에서는 지난 23일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양성하고자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클럽장학생 4명, 관명장학생 8명을 선정하여 장학금 1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들은 학업에 더욱더 전념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형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어 꿈이 이루어기를 바라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주남로타리클럽이 될 것을 약속했다.

2부 행사로 이경재 전주대 교수의 인문학 강좌 '두루미와 학'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과 나누고 베푸는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며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성이 나온다는 내용으로 한 특강이 열렸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신임 김유식 단장 선출

완주군 신임 자율방재단 단장에 김유식 삼례읍 대표가 선출됐다.

27일 완주군은 지난 26일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 교육과 신임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임 임원진(단장 임준환, 부단장 소병엽, 간사 이문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완주군의 재해예방과 대응을 위해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방재단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교육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총장 정용득 강사를 초청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자연재난 시 현장대응 요령 등의 내용으로 실시했다.

신임 단장 선출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호선에 의해 김유식 삼례읍 대표가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으로 선출됐다.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은 13개 읍·면에 총 2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자연 재난에 대비한 재해 취약 지역 사전 예찰 등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임 단장으로 선출된 김유식 단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읍면 및 군과 협력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대 동문 선배 창업가, 발전기금 기탁

전주대학교는 27일 동문 선배 창업가들이 후배 창업가 양성에 목적을 둔 '창업 릴레이 기부'를 통해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전주대 창업기업이자 동문으로, ㈜아이디어파트너스 김수환 대표(수학교육과 08학번), 에이피워(주) 김효열 대표(농생명ICT학과 20학번)다. 이들은 창업 릴레이 기부 캠페인을 통해 후배 창업가들을 위해 뜻을 모았다.

박진배 총장은 "후배 창업가 양성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의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준 발전기금은 재학생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에이피워(주) 김효열 대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와 창업지원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육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청소년문화의집, '백명의 북소리 공연' 참여

남원시는 시 청소년문화의집(관장 서대현)의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참여 청소년 20명이 지난 25일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남원대회 "100명의 북소리 공연"에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청소년 20명이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배워온 모듬북으로 지역 행사에 함께 참여해 큰 의미가 있었으며, 동학의 성지에 사는 청소년으로서 부패와 무능에 맞서 항거했던 당시 동학농민들의 위대한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남원시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 후 학습지원과 전문 체험 활동,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석대 이동호 학생,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우석대학교 이동호(유아특수교육과 1년) 학생이 2022년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 지체(K44)선수 선발대회에서 이동호 학생은 남자 -63kg부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이동호 학생은 태권도학과 김희정 학과장과 송남정 교수, 김정호 겨루기 선수단 감독의 지도 아래 태권도학과 겨루기 선수단과 기초체력 훈련 및 전술 훈련 등을 함께 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동호 학생은 "태권도학과 교수님과 감독님, 그리고 겨루기 선수단 선배들 덕분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같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를 맡은 송남정 교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반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한 이동호 학생이 대견하다"며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매진하면 전 세계 장애인 태권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동호 학생은 오는 10월 영국에서 열리는 '2022 맨체스터 WPT(World Para Taekwondo)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증 받아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화)로부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기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증받은 물품은 측량업무시스템, 토탈스테이션, 팬컴퓨터 등 각각 5개씩이다.

기증식에는 박종화 본부장, 김원준 지적사업처장, 김민경 지적사업팀장, 최정희 지적사업과장 등과, 우병훈 기획처장, 이근상 산학협력단장,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지적토목학과 김지성·김경주·김영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종화 본부장은 "오늘 기증한 소프트웨어에는 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최신의 기술을 담았다"면서 "현장실습에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우리 동네 플로깅' 실시

사회복지법인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장진원) 에서는 지난 24일 공동육아나눔터 회원과 무주군 일원 및 근처 남대천에서 'We can do it 우리동네 플로깅'을 실시했다.

지구 온난화현상으로 기후 변화가 확산되면서 나부터 지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행하는 환경보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플로깅(Plogging)이란 조깅(jogging)과 '이삭을 줍다'는 의미의 스웨덴어(plocka upp)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2016년 스웨덴에서부터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지금의 젊은층 사이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지리산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 지리산 뱀사골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하고 산행 중 실족,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리산 뱀사골 매표소 부근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간이응급의료소,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안전산행 홍보 등을 실시한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통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